

도시와 시골 개념의 접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김 남 회

전 우 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제시된 도시와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정보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주변시 경계 과제(parafoveal vigilance task)를 이용해서 도시 또는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단어들을 식역하로 제시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두 번째 과제에서 애매모호한 행동을 한 자극인물의 행동기술문을 읽고, 그를 다양한 성격 특성상에서 평가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도시 개념이 접화된 참여자들이 시골 개념이 접화된 참여자들보다 자극 인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개념의 접화는 평가대상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논의에서는 도시와 시골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 접화효과의 무의식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어 : 접화, 인상형성, 도시, 시골, 무의식

* 이 논문은 김남회의 2012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자료 중 일부를 바탕으로 하였음.

† 교신저자: 전우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E-mail: wooyoung@cnu.ac.kr

인상형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물리적인 환경이나 심리적인 맥락에 의해 쉽게 영향 받는다(Bargh & Chartrand, 2000). 특히, 사람들이 타인의 인상이나 성격, 또는 행동을 판단하기 위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판단 순간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인 맥락에 따라 판단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Higgins, Rholes, & Jones, 1977). 따라서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된 지식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장기기억 속에 비활성화된 상태로 있던 지식이 주변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지식이 개인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점화효과(priming effect)라고 한다(Bargh & Chartrand, 2000; Lashley, 1951). 점화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이전에 특정 지식과 연합되어 있던 대상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관련 지식을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hiffrin, Dumais, & Schneider, 1981). 그 결과, 활성화된 지식과 일치하는 태도(Kawakami, Dovidio, & Dijksterhuis, 2003; Srull & Wyer, 1979)나 행동(Bargh, Chen, & Burrows, 1996; Dijksterhuis & van Knippenberg, 1998)을 유도하거나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된 지식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판단의 대표적인 영역 중 하나는 인상형성이다.

무의식적 인상형성

인상형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첫 단계로, 어떤 인상을 형성했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호작용의 내용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인상형성이 인간관계의 매우 중요한 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상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는 의식적인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의

식은 인상형성의 결과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인상형성의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의식적 인상형성에 대한 고전적 연구인 Higgins, Rholes, 그리고 Jones(1977)의 연구에서는 특질의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과정이 사람들의 의식적인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전에 서로 다른 개념을 접화했다. 이를 위해서 한 집단의 실험참여자들에게는 '모험적인'과 관련된 특질 형용사를 암송하게 하였다. 반면에 다른 집단의 참여자들에게는 '무모한'과 관련된 특질 형용사를 암송하도록 하였다. 단어 암송이 끝난 후에 참여자들에게 단어 암송과제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소개한 독해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독해과제는 도널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글을 읽고 그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도널드의 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꾸며졌다. 즉, 도널드의 행동은 모험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무모하게 위험한 짓을 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단어 암송과제에서 '모험적인'과 관련된 단어를 암송한 참여자들이 '무모한'과 관련된 단어를 암송한 참여자들보다 도널드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Higgins 등(1977)의 연구가 흥미로운 것은 실험참여자들이 단어 암송과제와 도널드에 대한 인상 평가 과제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에 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첫 번째 과제를 하는 동안 자신이 암기하려고 노력했던 단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 즉 도널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단어 암송 과제를 통해 활성화된 지식이 이후의 인물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Higgins 등(1977)의 연구에서 실험참여자들은

점화된 지식과 판단 과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지 못했지만, 점화된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기억하려고 노력한 단어들이 ‘모험적인’ 성격특질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또는 ‘무모한’ 성격특질과 관련된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

인상형성의 무의식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은 Higgins 등(1977)의 연구 패러다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험참여자들이 점화된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문장구성과제(scrambled sentence task)를 사용하는 것이다(Srull & Wyer, 1979). 문장구성과제는 몇 개의 단어를 골라 제시하고, 이 중 일부의 단어만을 골라서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과제이다.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단어들 중 몇 개가 연구자가 점화하려고 하는 개념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Higgins 등(1977)이 사용한 암송과제와는 달리, 실험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개념과 관련된 단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Srull과 Wyer(1979)의 연구에서는 문장구성과제를 이용한 성격특질의 점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문장구성과제를 통해 적대감과 관련된 특질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었던 실험참여자들은 비교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도널드에 대해 더 적대적인 인상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두 번째 실험을 통해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특질뿐만 아니라 친절함과 같은 긍정적인 특질의 점화 역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장구성과제에서 점화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실험참여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확인 절차에서도 실험참여자들은 문

장구성과제를 통해 자신들이 어떤 개념에 노출되었는지를 전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argh, Chen, & Burrows, 1996; Srull & Wyer, 1979). 하지만 제시된 점화자극을 우리의 의식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들은 식역하(subliminal) 점화절차를 사용한다.

식역하 점화절차는 실험참여자들에게 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약 1/4 초 이하의 속도로 빠르게 자극이 제시되면, 화면에 어떤 깜빡거림이 있었다는 것은 지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제시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Neely, 1977).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 중 주된 연구목적이 의식적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된 정보의 효과인 연구들의 경우에는 100ms 이하의 자극 제시 속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argh와 Pietromonaco(1982)의 연구에서는 주변시 경계 과제(parafoveal vigilance task)를 이용해서 점화된 개념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주변시 경계 과제는 망막의 중심와(fovea) 바깥의 시야 장에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참여자들이 제시되는 자극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주변시야의 어떤 위치에 번쩍거림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중심와에 제시되어도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르기인 100ms의 속도로 주변시야에 제시되는 자극에 노출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실험참여자들은 주변시야에 글자가 제시되었는지 아니면 그림이 제시되었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주변시야에 적대감과 관련된 단어가 제시되었던 조건의 참여자들이 적대감과 무관한 단어에 노출되었던 참여자들보다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점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과

정이 우리의 의식적인 자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과 인상형성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다양한 단서를 정보로 활용한다. 특히 상대방을 처음 만나는 상황처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된 개인적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관련된 주변단서들이 인상형성과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단서들 중의 하나가 상대의 출신 또는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인 서울 내에서도 거주지가 강남이나 강북이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강남 노숙자는 강북 노숙자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더 깔끔하고, 더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뉴시스, 2011. 10. 24).

한국 사회의 지역 고정관념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출신지역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충청도 지역 사람들에 대해 '인정이 많다', '유순하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충청도 지역 사람들이 '지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상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범준, 2002; 박상희, 김혜숙, 2009).

출신지역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 박상희와 김혜숙(2009)은 실험참여자들에게 취업 면접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제공하였다. 이 때 실험참여자들에게 제공한 영상은 동일한 인물이 면접 지원자로 등장하는데, 조건에 따라 지원자의 말투가 다르게 조작되었다. 한 조건에서 면접 지원자는 서

울 말씨를 사용한 반면, 다른 조건에서는 충청도 말씨를 사용하였다.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실험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영상 속 면접 지원자에 대한 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면접 지원자가 충청도 말씨보다 서울 말씨를 사용했을 때 채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채용상황에서 면접 지원자의 출신지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개인의 성격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주요 시기인 인생 초기를 어디에서 생활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출신지역을 토대로 개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출신지역과는 무관한 개인이 현재 위치한 공간 또는 지역도 인상형성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한다. Darley와 Gross(1983)은 실험참여자들에게 도시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거나 교외의 중산층이 거주하는 곳을 배경으로 찍은 한 소녀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 속 소녀의 학업능력과 성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도시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본 참여자들보다 교외의 중산층 가정에서 주로 거주하는 곳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본 사람들이 이 소녀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경이 중산층 거주 지역이었을 때, 저소득층 거주 지역이었을 때보다 사진 속 소녀가 독해와 학업능력이 더 뛰어나고, 더 사교적이고, 동기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일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그 사람의 다양한 배경 정보를 활용한다. 배경정보에

는 성별, 인종, 재산에서 아버지의 직업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배경 정보들은 대부분 개인의 사회심리적 차원의 배경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정보로 주로 연구되어온 변인들도 대부분 사회심리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형태의 배경 정보는 물리적인 배경 정보다. 즉, 개인이 어떤 물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이다. 물리적 배경 정보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회심리적 배경 변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골 쥐와 도시 쥐에 대한 이숙 우하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과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생활을 영위하는 물리적 공간이 그 공간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배경 정보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와 시골이라는 삶의 공간에 대한 무의식적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도시 또는 시골과 연합된 개념을 점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개념의 점화가 완전히 의식의 밖에서 일어났을 때도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Bargh와 Pietromonaco(1982)의 연구에서 사용한 주변시 경계 과제(parafoveal vigilance task)를 이용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험참여자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과 연합된 단어를 중심와(fovea) 바깥의 주변시야에 80ms의 빠른 속도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지점의 상이 멎히는 중심와에 자극이 제시되더라도 250ms보다 빠른 속도로 제시되면 자극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하였

다(Neely, 1977). 따라서 시선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주변시야에 의식이 자각할 수 없는 속도로 도시 또는 시골 지역과 개념적으로 연합된 단어들 제시한 것이다. 즉, 주변 시야에 식역하(subliminal)로 점화자극을 제시하는 과제를 통해 도시 또는 시골과 연합된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의 차원은 개인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의 차원은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 두 개의 차원은 연구자에 따라 능력과 도덕성 차원으로 명명하기도 하고(Skowronski & Carlston, 1987, 1989), 지배성과 공동체성(Eagly & Kite, 1987; Eagly & Steffen, 1984)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이 유능성과 공동체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기존의 지역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지역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유능한 것으로 지각되는 반면, 다른 시골 지역을 포함하는 충청도나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은 순박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범준, 2002; 박상희, 김혜숙, 2009; 전우영, 홍석순 2007). 만약 도시와 시골에 대한 개념이 각각 유능감과 공동체성과 연합되어 있다면, 도시 지역에 대한 점화는 유능감을 활성화 하고, 시골 지역에 대한 점화는 공동체성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도시와 연합된 개념의 점화는 개인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도록 만드는 반면, 시골과 연합된 개념의 점화는 개인을 더 공동체성이 강한 사람으로 지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방 법

실험참여자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47명(남성 21명, 여성 26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28세($SD=2.23$)였다.

실험자극

실험에서 사용할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점화자극을 선정하기 위해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2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도시를 떠올렸을 경우에 고층빌딩, 상가(13.04%)를 떠올린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나 지하철(10.14%),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10.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골을 떠올렸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14.67%)가 떠올랐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벼나 논밭(10.67%), 소, 개(9.33%), 경운기(8.00%), 그리고 새참이나 농부, 추수(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할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개념을 점화할 단어를 선정하였다.

실험절차

실험동의서에 대한 작성이 끝난 후에 참여자들은 인지적 반응과제로 소개받은 점화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참여자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개념을 점화하기 위해 주변시 경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주변시 경계 과제는 망막의 중심와 바깥의 시야장(parafoveal visual field)에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제시되는 자극을 의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식역하 점화절차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정점으로부터 0°부터 2°사이의 시각도

(visual angle) 범위가 중심와 시야장에 해당하고, 2°부터 6°사이의 범위는 중심와 바깥 시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심와 바깥 시야장의 영역은 실험참여자 과 고정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고정점과 실험참여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심와 시야장(foveal visual field)이 넓어지게 된다(Bargh & Chartrand, 2000).

본 연구에서는, Bargh, Bond, Lombardi, 그리고 Tota(1986)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참여자 과 고정점이 제시되는 모니터 사이의 거리가 99cm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포함한 책상 과 의자의 위치를 고정하였다. 또한 실험참여자 들에게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앉은 자세를 유지 하도록 함으로써 중심와 시야장이 일정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Bargh 등(1986)에 따르면, 고정점을 중심으로 약 7.6cm 떨어진 영역은 중심와 바깥 시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의 의 식적으로 인지할 수 없도록 고정점으로부터 약 7.6cm 떨어진 곳에 점화단어들을 제시하였으며, 점화단어들은 고정점을 기준으로 상, 하, 좌, 우 에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중심와 바깥 시야장 을 통한 식역하 점화절차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 에 따르면, 고정점에서 중심와 바깥 시야장으로 주의를 이동하는데 평균 190ms가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Rayner, 1978), 본 연구에서는 중 심와 바깥 시야장에 점화단어를 80ms의 속도로 제시함으로써 실험참여자들이 점화단어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도록 조작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컴퓨터 화면 한 가운데 제시 되는 고정점을 기준으로 자극이 왼쪽에 제시되 면 왼손 검지로 F키를 눌러 반응하고, 자극이 고정점 오른쪽에 제시되면 오른손 검지로 J키를 눌러 반응하도록 하였다. 실험참여자들에게 도 시 또는 시골 지역과 연합된 단어들 점화자극 으로 제시되었다(부록 1 참조). 점화자극이 제시 된 후에는 무의미한 영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차폐자극을 제시하였다(Bargh, Chartrand, 2000;

Bargh, & Pietromonaco, 1982; Chartrand & Bargh, 1996). 참여자들은 10회의 연습시행을 실시한 후에, 본 시행을 60회 실시하였다. 본 실험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점화를 위한 인지적 반응과제가 끝나면, 실험참여자들은 인지적 부하(“귀하는 현재 얼마나 정신적으로 분주함을 느끼십니까?”), 기분(“귀하의 현재 기분이 어떻습니까?”), 구조화에 대한 욕구(Personal Need for Structure, Neuberg & Newsom, 1993; Thompson, Roman, Moskowitz, Chaiken, & Bargh, 1994)를 측정하기 위한 12 문항(예, 나는 분명하고 구조화된 생활을 즐긴다.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에 응답했다. 이를 통해 도시 또는 시골 개념에 대한 점화 자체가 아니라 점화로 인해 발생한 인지적 부하, 기분 또는 구조화에 대한 욕구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세 측정 변인은 도시 또는 시골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도시가 시골에 비해서 더 복잡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 점화가 시골 지역 점화에 비해 인지적 부하를 증가시키고, 구조화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고정관념에 기초한 인상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도시나 시골 지역 점화가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기분 때문에 인상형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험참여자들은 인지적 부하, 기분, 구조화 욕구에 대해 응답한 후에 실험자로부터 본 실험

과 무관한 것으로 소개받은 인상형성 과제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 한 인물의 행동에 대한 기술문을 제시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 대상 인물에 대한 기술문은 Srull과 Wyer(1979)가 사용한 도널드에 대한 시나리오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기술문 속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 알게 된 친구인 도널드를 오랜만에 방문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읽고 기술문 속 도널드의 성격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중략)..그는 또한 나에게 현재 집주인이 그의 아파트를 다시 칠해줄 때까지 짐세를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 먹었다. 그리고 난 후에 자동차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내 자동차를 사용하였는데, 그의 자동차가 아침에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동차 정비공에게, 만약 오늘 안에 자동차를 고칠 수 없다면 그는 다른 자동차 정비소로 가겠다고 말하였다..(후략)

기술문을 읽고 난 후에 실험참여자들은 성격 특성 형용사가 기술문 속 인물인 도널드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에 대해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 상에 평가하였다. 성격 특성 형용사들은 기존의 연구들(전우영, 홍석순, 2007; Eagly & Kite, 1987)에서 유능성(침단의, 독특한, 활기찬, 유능한, 과학적인, 멋진, 자신 있는, 쾌활한, 경쟁적인)과 공동체성(따뜻한, 협동적인, 도움을 주는, 도덕적인, 조화를 중시하는)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사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유능성 차원의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고, 공동체성 차원의 문항간 신뢰도 계수도 .8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 실험참여자들에게 인지적 반응과제를 하는 동안에 점화 단어가 제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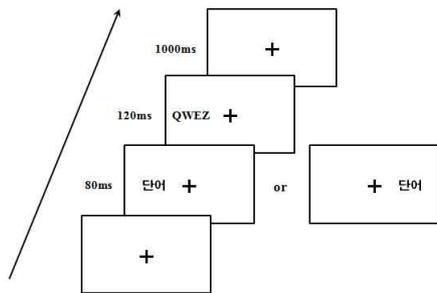


그림 1. 주변시 경계 과제의 절차 도식

었다는 것을 의식하였는지, 그리고 실험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실험참여자들 중에서 점화자극을 의식하거나 실험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실험 절차가 종료된 후에 실험의 목적을 설명하고 실험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결 과

유능성과 공동체성에 대한 평가

도시 또는 시골 지역에 대한 점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2(점화 개념: 도시, 시골) × 2(평가 차원: 유능성, 공동체성) 이원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점화 개념은 참여자간 변인이었으며, 평가 차원은 참여자내 변인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점화 개념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5)=6.27, p<.05$. 도시($M=2.86, SD=.80$)에 대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 시골($M=2.30, SD=.72$)에 대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평가 대상인물을 전체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vs.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 유능성 차원과 공동체성 차원 모두에서 인상형성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시(vs. 시골)에 대한 무의식적 점화가 평가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도록 만든 것이다.

평가 차원의 주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5)=8.61, p<.01$. 실험 참여자들은 평가 대상 인물의 유능성($M=3.17, SD=.95$)을 공동체성($M=1.99, SD=.84$)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 자극으로 제시된 평가 대상 인물의 행동이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능성 차원의 성향이 주로 묘사된 인물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점화된 개념과 평가 차원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5)=8.61, p<.01$. 상호작용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능성 차원에서는 도시($M=3.60, SD=.90$)가 점화되었을 때 시골($M=2.73, SD=.80$)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평가 대상 인물의 유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5)=3.52, p<.01$. 하지만 공동체성 차원의 경우에는 도시($M=2.11, SD=.90$)와 시골($M=1.87, SD=.78$) 개념의 점화에 따른 공동체성 평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45)=.97, p=.34$. 이러한 결과는 도시(vs. 시골)에 대한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점화되었을 때, 평가 대상에 대해 유능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인상이 형성되지만, 시골(vs. 도시)이 점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평가 대상을 더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으로 지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점화 개념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성별의 주효과, 성별과 평가 차원 간의 상호작용효과, 성별과 점화 개념 간의 상호작용효과, 마지막으로 성별, 점화 개념, 그리고 평가 차원의 삼원 상호작용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3)=.43, p>.50$; $F(1, 43)=3.36, p>.07$; $F(1, 43)=.03, p>.80$; $F(1, 43)=.69, p>.40$. 이러한 결과는 도시 또는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의 무의식적인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점화 개념과 평가 차원에 따른 인상형성의 평균(표준편차)

	점화 개념	
	도시	시골
유능성	3.60(.90)	2.73(.80)
공동체성	2.11(.90)	1.87(.78)

개별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

점화 개념에 따라 평가 대상 인물의 개별적인 성격특성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성격 특성 형용사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무의식적으로 도시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된 조건의 실험참여자들이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된 조건의 실험참여자들보다 평가 대상 인물에 대해 보다 첨단적이고, 독특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vs. 시골)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점화되었을 때, 평가 대상 인물에 대해 과학적이고, 멋진, 자신 있고, 쾌활하고, 경쟁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도시(vs. 시골) 개념의 무의식적 점화가 평가 대상 인물이 능력 있고 활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점화 개념에 따른 공동체성과 관련된 성격 특성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도시나 시골 지역에 대한 점화가 공동체성과 관련된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부하, 기분, 그리고 구조화 욕구

점화 개념에 따른 인지적 부하, 기분, 구조화에 대한 욕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45)=-1.27, p>.20$; $t(45)=-.10, p>.90$; $t(45)=-.14, p>.80$. 즉,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무의식적인 점화는 개인의 인지적 부하 정도, 기분, 그리고 구조화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점화 개념에 따른 성격 특성 평가에 대한 평균(표준편차)

평가 차원	성격 특성	점화 개념		<i>t</i>
		도시(N=24)	시골(N=23)	
유능성	첨단의	2.79(1.10)	1.91(0.92)	2.93**
	독특한	4.92(1.41)	3.39(2.01)	2.99**
	활기찬	4.00(1.32)	2.91(1.41)	2.73**
	유능한	3.42(1.18)	2.57(1.41)	2.25*
	과학적인	3.00(1.69)	2.26(0.92)	1.87
	멋진	2.13(1.12)	1.61(0.84)	1.79
	자신있는	4.54(1.82)	3.57(1.90)	1.80
	쾌활한	3.33(1.61)	2.57(1.20)	1.85
공동체 성	경쟁적인	4.29(1.57)	3.73(1.52)	1.24
	따뜻한	2.04(1.33)	1.70(1.15)	.95
	협동적인	2.17(1.13)	2.00(0.95)	.55
	도움을 주는	1.83(0.92)	1.65(0.78)	.73
	도덕적인	2.21(1.10)	1.91(0.97)	.96
	조화를 중시하는	2.29(1.20)	2.09(1.24)	.58

p* <.05, *p* <.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시골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나 시골과 연합된 개념의 무의식적인 점화가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주변시 경계 과제를 이용해서 도시 또는 시골과 연합된 단어를 중심와 바깥의 주변시야에 식역하 수준의 속도로 제시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단어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의식적인 자각이 없었음에도, 도시 지역과 연합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 시골 지역과 연합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평가 대상 인물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인 성격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도시(vs.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 평가 대상 인물을 보다 첨단적이

고, 독특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도시(vs. 시골) 지역과 연합된 개념에 대한 무의식적 점화가 평가 대상 인물을 더 유능하고 활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삶의 공간, 즉 물리적인 배경 정보가 그 속에 존재하는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의식적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동체성 차원에서는 도시나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의 점화에 따른 평가 대상에 대한 인상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예상과는 달리, 시골(vs. 도시) 지역에 대한 개념 점화가 평가 대상 인물을 더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으로 지각하도록 만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골이 도시에 비해 공동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시골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표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과거에 '시골'이 '고향'과 동일시되었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 뒤쳐진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시골 지역도 경쟁의 강도가 강해지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확대되면서, 과거에 시골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공동체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고정관념들이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실제 우리의 정신표상에서는 도시도 시골만큼 공동체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시민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도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경쟁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즉 조화와 협력의 가치가 강조되는 공간으로 점점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발달은 도시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래 도시와 시민사회의 개념을

서로 구분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힘들다(조명래, 2001).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의사결정과 협력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맺은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적응적인 요소이다(Axelrod, 1984; Axelrod & Hamilton, 1981; Rousseau, 1968). 따라서 도시에 대한 개념의 활성화가 사회적 계약과 같은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의 활성화를 촉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결과, 도시 지역에 대한 개념의 점화가 시골만큼의 공동체성을 지각하도록 유도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Shariff와 Norenzayan(2007)의 연구에서는 '시민', '배심원단', '법정', '경찰', '계약' 과 같은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의 점화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점화된 경우에 사람들은 통제조건의 경우보다 자신이 가져갈 수도 있었던 돈을 타인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의 활성화가 사람들의 이기적인 의사결정을 억제하고 보다 협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도시에 대한 개념이 실제로 사회적 계약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과 연합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시에 대한 개념의 점화가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도시 개념의 점화를 통해 활성화된 시민사회 관련 개념이 개인의 협동적인 행동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점화 자극이 80ms의 속도로 제시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 정도의 빠르기는 자극이 망막의 중심좌에 제시되어도 자극의 실체를 의식적으로 자각하기 힘든 속도로 알려져 있다(Bargh & Pietromonaco, 1982; Neely, 1977).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더해 점화 자극을 중심와 밖의 주변시야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실험참여자들이 화면에 제

시된 자극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실제로 실험참여자들은 화면에 단어가 제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절차는 도시 또는 시골 지역과 연합된 개념의 점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과정이 우리의 의식적인 자각과는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누군가가 어떤 물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지만, 이러한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대상 인물에 대한 인상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인상평가의 점수가 7점 척도의 중앙치에 해당하는 4점 이하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나리오 속의 평가대상 인물의 행동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시나리오의 내용이 평가대상 인물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주변사람들과 갈등하고 일종의 위협을 가하는 모습(예, 집세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자동차 정비공에게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 등)으로 지각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적인 인상평가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시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 시골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유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능성 평정의 평균($M=3.60$) 값은 중앙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시나리오 속의 평가대상 인물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평가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상 때문에 유능성에 대한 평정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점화된 개념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유발되었다는 것이다. 일종의 바닥효과(floor effect) 때문에 실험조작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점화 조건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바닥효과와 관련된

또 다른 가능성은 평가대상 인물이 공동체성 차원에서만 극도로 부정적인 인상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능성 차원과는 달리 공동체성 차원에서는 점화 조건에 따라 인상평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행동을 하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의 인상을 가진 인물을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점화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의 점화가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의 인지적 부하, 기분, 그리고 구조화에 대한 욕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역하 점화를 통한 개념의 무의식적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심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은 주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많은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우리사회의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 주제로 삼아왔다. 기존의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들은 주로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예, 충청도, 강원도 등)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에 집중했다(김혜숙, 1988; 전우영, 홍석순, 2007). 예를 들면, 서울 또는 서울 사람들은 경쟁적이고,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지만, 강원도나 강원도 사람들은 친절하고, 가정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고정관념의 내용을 조사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떤 과정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고정관념의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지역과 연합된 대상이나 환경적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된 고정관념은 다시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는 다양한 시와 도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크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서울과 시골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한국은 크게 서울로 대표되는 도시와 비수도권을 통틀어 지방 또는 시골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행동을 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물리적인 배경공간과 연합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도시와 연합된 경우에는 시골과 연합된 경우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시골이라는 개념만을 접화하였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도시는 서울로 대표되고, 지방은 시골로 인식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사회에서 '서울사람'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유능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고정관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시골사람 또는 지방출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제 능력과는 무관하게 유능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활성화로 인한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범준 (2002).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1-18.
김혜숙 (1988). 지역 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세대 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

학에서 본 지역감정(pp. 37-62). 서울: 성원사.
뉴스스 (2011. 10. 24). [르포] 강남 vs 강북 노숙자의 일상 생활은 다르다? <http://www.newsis.com>에서 2011, 11, 8 인출.
박상희, 김혜숙 (2009). Where are you from? 지역 고정관념에 따른 언어 기대 편파(LEB): 언어 범주화 모델(LCM)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03-125.
전우영, 홍석순 (2007). 한국 내 도시에 대한 고정관념: 서울과 강원지역 도시의 비교.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580-581.
조명래 (2001). 도시, 갈등, 시민성, 한국사회, 4, 31-82.
Axelrod, R.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Y: Basic Books.
Axelrod, R., & Hamilton, W. D. (1981).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211(4489), 1390-1396.
Bargh, J. A., Bond, R. N., Lombardi, W. J., & Tota, M. E. (1986). The additive nature of chronic and temporary sources of construct acces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869-878.
Bargh, J. A., & Chartrand, T. L. (2000). The mind in the middle: A practical guide to priming and automaticity research. In H. T. Reis & C. M. Judd(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pp. 253-28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gh, J. A., & Chen, M., & Burrows, L. (1996).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230-244.
Bargh, J. A., & Pietromonaco, P. (1982). Auto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social perception: The influence of trait information presented outside of conscious awareness on impression formatio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37-449.
- Chartrand, T. L., & Bargh, J. A. (1996). Automatic activation of impression formation and memorization goals: Nonconscious goal priming reproduces effects of explicit task instru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893-910.
- Darley, J. M., & Gross, P. H. (1983). A hypothesis-confirming bias in labeling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20-33.
- Dijksterhuis, A., & Van Knippenberg, A. (1998). The relation between perception and behavior, or how to win a game of trivial pursu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4), 865-877.
- Eagly, A. H. & Kite, M. E. (1987). Are Stereotypes of nationalities applied to both women and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51-462.
- Eagly, A. H. & Steffen, V. J. (1984). Gender Stereotypes stem from the distribution of women and men into social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735-754.
- Higgins, E. T., Rholes, W. S., & Jones, C. R. (1977). Category accessibility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41-154.
- Kawakami, K., Dovidio, J. F., & Dijksterhuis, A. (2003). Effect of social category priming on personal attitudes. *Psychological Science*, 14(4), 315-319.
- Lashley, K. S. (1951). The problem of serial order in behavior. In L. A. Jeffress(Ed.), *Cerebral mechanisms in behavior: The Hixon symposium*(pp. 112-136). NY: Wiley & Sons.
- Neely, J.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6-254.
- Neuberg, S. T., & Newsom, J. T. (1993). Personal need for structu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sire for simple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1), 113-131.
- Rayner, K. (1978). Foveal and parafoveal cues in reading. In J. Requin(Ed.), *Attention and performance VIII*(pp. 149-161). Hillsdale, NJ: Erlbaum.
- Rousseau, J. J. (1968). *The social contract, or principles of political right*(H. J. Tozer, Trans.). London: Penguin Classics. (원저는 1762년 출판됨)
- Shariff, A. F., & Norenzayan, A. (2007). God is watching you: Priming god concepts increases prosocial behavior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Psychological Science*, 18(9), 803-809.
- Shiffrin, R. M., Dumais, S. X., & Schneider. W. (1981). Characteristics of automatism. in J. Long & A. Baddeley(Eds.), *Attentions and performance IX*(pp.223-238). Hillsdale, NJ: Erlbaum.
- Skowronski, J. J., & Carlston, D. E. (1987). Social judgment and memory: The role of cue diagnosticity in negativity, positivity, and extremity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89-699.
- Skowronski, J. J., & Carlston, D. E. (1989). Negativity and extremity biases in impression formation: A review of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5, 131-142.
- Srull, T. K., & Wyer, R. S., Jr. (1979). The role of category access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Som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660-1672.
- Thompson, E. P., Roman, R. J., Moskowitz, G. B., Chaiken, S., & Bargh, J. A. (1994). Accuracy motivation attenuates cover priming: The systematic re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474-489.

1 차원고접수 : 2013. 01. 28.

수정원고접수 : 2014. 05. 15.

최종게재결정 : 2014. 05. 15.

Effects of Priming City versus Rural Area Concepts on Impression Formation

Namhee Kim

Woo Young Ch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that information relevant to the concepts of city and rural areas presented outside of conscious awareness can influence impression formation. Participants initially performed a parafoveal vigilance task in which some were exposed subliminally to words related to the concept of city area while others were exposed to the rural area concept. In an ostensibly unrelated second task, participants read a behavioral description of a stimulus person whose behavior was ambiguous, and then rated him on several personality trait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whose concept of city area was primed formed more positive impressions of the stimulus person, especially on an ability dimension, than those primed with the concept of rural area.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stereotypes of city versus rural areas and the unconsciousness of priming effects are discussed.

Key words : priming, impression formation, city, rural area, unconsciousness

부록 1. 접화 단어 목록

도시 접화 단어	시골 접화 단어
고층빌딩	개울
교차로	경운기
대형마트	논밭
매연	들판
백화점	밑짚모자
소음	새참
아스팔트	시냇가
아파트	아궁이
지하철	초가집
편의점	추수